

3D 스마트폰·태블릿PC 다시 뜨나

아마존 파이어폰 지난달 출시

LG·구글 협업 새 태블릿PC 개발

안경없이 3D 영상 관람 이용자 선호

한동안 뜸했던 3차원(3D) 스마트 기기가 다시 정보기술(IT) 기기 시장의 대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유력 IT업체들이 3D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최근 내놓았거나 내놓을 예정이다.

3D 제품은 지난 2012년까지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나름대로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후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신제품 출시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이 3D 스마트폰을 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금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체 개발 3D 스마트폰 '파이어폰'을 선보였다. 파이어폰은 전면의 특수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 방향 등을 인식해 영상이 사용자를 따라다니도록 하는 신기술이 적용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상황에서 구글과 LG전자가 함께 3D 태블릿PC를 만든다는 사실이 최근 열린 구글 개발자대회(I/O) 기간에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스마트 기기가 IT 시장의 대세가 될지에도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다.

LG전자가 만드는 3D 태블릿PC는 프로젝트명이 '탱고'로 7인치 3D 화면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구글과 기존(레퍼런스) 제품으로 만드는 만큼 구글이 직접 3D 엔진 등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완성도도 높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아마존의 '파이어폰'.



2011년 출시됐던 LG전자 '옵티머스3D'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1~2012년에는 '스릴 4G', '옵티머스3D', '옵티머스3D 큐브', '옵티머스3D 맥스' 등을 선보이며 이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나갔다. 하지만 이후 3D 스마트폰 시장이 예상보다 성장하지 않으면서 후속 제품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LG전자는 넥서스4, 넥서스5와 G패드 등 구글의 기존 스마트폰·태블릿PC를 수 차례 만들면서 구글과의 협업 '팀워크'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파이어폰과 탱고로 3D 스마트 기기가 각광을 받으면 LG전자가 상당한 시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블록버스터 영화가 3D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가 풍부한 데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져 3D 수준의 영상을 플레이하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D 스마트 기기는 3D 극장과 달리 전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극장에서는 관객의 자리에 따라 시선의 위치가 다양해 반드시 편광형 안경을 착용해야 3D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대개 개인용인 스마트 기기는 상대적으로 시선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 무안경으로 3D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가입비 최대 1만2000원 인하

내달부터 전년 대비 50%씩 내리

빠르면 8월 휴대전화 가입비가 최대 1만2000원 가량 인하된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0일 가입비 인하 등을 골자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지난해 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가입비 인하는 지난해(전년 대비 40%)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T는 현재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이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연간 17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현재 8800~9900원대인 유심(USIM, 입자식별모듈) 가격도 10% 인하되고, 2G·3G 피쳐폰 종량제 요금제의 데이터요금도 KB당 1.5원(단일요금 기준)에서 0.25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미래부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부담이 큰 기본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미 폐지가 결정된 가입비 인하 등 결가지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심 가격 인하나 무선인터넷전화 사용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인데다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3868만명)의 82.4%를 차지하는 LTE 가입자를 위한 통신비 경감 대책이 전무한 것도 비판을 키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통신비 경감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기본요금제 인하나 빠져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8인치 LTE태블릿 '갤럭시탭4' 출시

삼성전자, 출고가 42만9000원

삼성전자가 8인치 광대역 통밀에블루션(LTE) 태블릿 '갤럭시탭4'를 KT와 LG유플러스(U+) 전용으로 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테두리가 7.1mm로 7~8인치 태블릿PC 가운데 가장 얇고, 두께 8mm, 무게 326g으로 얇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화면 해상도는 1280×800으로 화면비는 16대 10이다.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 대신 LCD를 채택했다.

안드로이드 4.4 '킷캣' 운영체제(OS)에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5GB 램, 4천450mAh(밀리암페어시) 배터리를 채용했다. 음성통화 기능도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여러 사람의 계정을 등록하면 한 제품을 여러 대의 태블릿PC처럼 활용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유저 모드'와 어린이용 '키즈 모드'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출고가는 42만9000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주의 추천 앱

예쁜사진 촬영 원하세요?

높은 화소수를 자랑하는 하이엔드 스마트폰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카메라 앱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고 특별한 촬영기술 없이도 예쁜 사진을 만들어내는 앱을 소개한다.

Cortex Camera

◆Cortex Camera
제작 : Whimsical Productions
사용기반 : 아이폰
사진의 화질을 대폭 개선하는 앱이다. 저조도의 환경에서도 사진품질을 높여 선명한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일정시간동안 여러 장을 촬영하고 이를 자동 합성하는 방식으로 화소 수를 극대화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캔디카메라

◆캔디카메라
제작 : JP Brothers, Inc.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별도의 후보정 작업 없이 실시간 필터를 통해 다양한 사진효과를 낼 수 있는 앱이다. 30가지 이상의 필터를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자르기 등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다.

Paper Camera

◆Paper Camera
제작 : JFDP Labs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사진과 동영상을 카툰형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 앱이다.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긴 화면을 변형시켜 즉각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카툰만화·스케치·코믹북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문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악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